

전국체전

■ 전남 유도대표 여고 3인방

“우리가 전국 최강”

■ 광주 서석고 검도

■ 여기는 무등골



해외동포선수 열악한 숙소에 불만

○선수단 숙소와 체전운영에 대한 해외동포 선수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조선대학교 축구경기장에서 만난 각종 해외동포 선수단 관계자들은 “체전 참가 직전에 광주시에 저렴한 숙소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렇게 열악한 숙소는 몰랐다”며 불쾌해 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배정한 숙소가 화순과 나주, 광안구 등 시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 한번 들어가면 광주를 구경하기 위해 나오기도 쉽지 않고 시설자체도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유스호텔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페인 등의 동포들이 숙박하고 있으나 전체가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침대생활을 하는 동포들이 불편을 겪었고 화장실이 부족해 여자 선수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는 것.

중국동포 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김천 체전의 경우 무제한으로 배차를 해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찾을 수 없었다. 테니스와 볼링경기 일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혼선을 빚는데다 해외동포팀의 경기결과를 체전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며 차량배차와 경기운영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

동포들은 “문화체전을 표방한 광주에서 해외동포 선수단은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월드컵 경기장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가 상영된 사실도 다음날 알았다”고 말했다.

대회본부 전화번호 바뀌어 큰 불편

○광주에서 발행한 ‘전국체육대회 종합안내서’에 소개된 대회·경기운영본부의 전화번호가 대회 직전 바뀐 뒤 수정되지 않는 바람에 체전 관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국체전 기간동안 핵심기관인 대회·경기 운영 본부를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키로 하고 해당 전화번호(385-7700~1, 7707~8)를 안내책자에 소개했으나, 대회 직전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했고, 대회본부는 385-7200번으로, 경기본부는 385-7240번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미 안내책자는 배부된 상태였고, 수정도 불가능해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행정상의 실수다. 이날 오후부터 착신을 통해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화려한 휴가’ 상영...1만 관중 감동

○9일 밤 영화 ‘화려한 휴가’가 상영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1만 여 관중의 웃음과 울음으로 감동의 물결을 이뤘다.

이날 경기장에는 얼마 전에 입힌 갓난아이부터 5·18 당시를 회고하며 눈물을 흘리는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

전역을 2주일 앞둔 기동대원, 금메달을 목표로 광주를 찾은 9명의 고대부고 핸드볼 대표팀 선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 영화관을 찾을 수 없었던 50대 주부까지 다양했다.

박태환 덕에 수구도 관중 몰려

○“마린보이” 박태환의 인기로 비인기 종목인 ‘수구’에도 관중의 응원이 쏟아졌다.

10일 남고부 800m계영 결승에 참가하는 박태환을 보기 위해 염주수영장을 찾은 1천500여 명의 관중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다음 경기로 진행될 ‘수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단)

4체급서 금 휩쓸어

전남지역 여고생들이 유도경기장에서 전남선수단 사상 첫 4체급 금메달의 이정표를 세웠다.

10일 오후 전국체전 유도경기가 펼쳐질 날래 시오고 체육관. 오전 예선을 거쳐 5명의 전남지역 여고생들이 결승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4~5개 금메달을 예상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첫 주자로 무제한급 김지윤(전남체고·가운데)이 울산 이은주와 맞붙었다. 서로 기술이 먹히지 않아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으나 다양한 공격을 감행한 김지윤의 우세승으로 첫 번째 금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한기쁨(여수정보과학고·왼쪽)이 48kg급 이하 경기에서 경남 정보경을 만났다. 한기쁨이 2분 47초를 남기고 안다리 걸기로 유효를 따냈고, 1분 50초를 남기로 누르기를 성공시켜 깨끗한 판승을 거뒀다.

전남선수들의 사기가 절정에 오른 상태에서 3번째 70kg급 이하 천주연(전남체고·오른쪽)이 정수지(광주)와 꺾끄럽게 만났다.

천주연은 초반 정수지에게 업어치기를 허용해 유효를 냈겨 패색이 짙었으나 1분27초를 남기고 안다리 후리기로 절반을 얻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3번째 금빛 환호를 올렸다.

4번째 한단비가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5번째로 나선 김지윤이 78kg급이상에서 경남 장은영과 마지막 경기를 펼쳤다.

무제한 급에서 기력을 소모했지만 김지윤은 국내 최강급에 시원한 허벅다리후리기 한 판승을 거두며 전남선수단에 4번째 금메달을 안기며 오늘의 축제를 마무리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25년만에 정상 탈환

서석고 검도가 25년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석고 검도부는 지난 9일 오후 서석고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검도 고등부 결승에서 강호 인천 서운고를 4-2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대회에서 동메달 권으로 예상됐던 서석고의 선전은 놀라웠다.

1회전에서 울산중앙고를 2-1로 꺾었고, 2회전에서는 충북공고를 4-2, 준결승전에서 강호 광명고를 3-2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마침내 25년 만에 한을 풀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전국대회에서 우승권이 없었으나 체전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정동진(43·윗줄 맨오른쪽) 서석고 감독

이 지난 제63회 진주전국체육대회 서석고 선수로 고등부에서 우승을 한 이후 자신이 감독으로 부임해 25년만에 패권을 차지한 것.

정 감독은 이번 체전을 위해 3년전부터 목포도장출신 최진석(3학년), 장성중 출신 김민재·김다현(3년)을 스카우트 해 선수를 키워 오늘의 영광을 안았다.

정 감독은 “이번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3억여 원을 들여 체육관 개·보수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투혼을 발휘해 우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부 경기는 7인제로 영광의 서석고 선수는 김재성(3년), 이준의(2년), 정정인(2년), 박성현(3년), 최진석(3년), 남찬영(3년), 김민재(3년), 오원종(2년)

/글·사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어! 이런 종목도 있었네...

무등산서 산 빨리 오르기 ‘산악’ 열려

수상스키·바둑 등 동호인 종목 눈길

무등산 봉황대와 향로봉, 깃대봉 등 15km 구간을 등반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도로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 밭줄 매듭 묶기와 각종 장비 사용법 등도 숙지해야 한다.

일반 등산인들이 들으면 “무등산을 오르는데 물통 하나만 됐지, 뭐가 이리 복잡해”라고 고개를 가우뚱 할 법도 하지만 이번 광주체전에서 일반등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겐 필수적이다.

중요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개막한 전국체전에서는 41개 정식

종목과 함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이색적인 동호인 종목 경기가 치러진다.

지난해까지 전시종목으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동호인 종목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대회에선 산악(일반등산, 스포츠클라이밍)을 비롯 육상(동호인마라톤), 정구(장년부, 부녀부), 복싱(여자부), 유도(성인부), 야구(사회인부), 검도(여성부), 양궁(컴파운드부), 수상스키(트릭, 슬라롬, 웨이크보드), 소프트볼(남자부), 당구(케틀, 포켓볼), 공수도(고등부, 일반부), 바둑(일반, 페어, 학생, 여성, 어린이부) 등이 13개 종목이 열린다.

등산은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일반등산

과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두 분야로 나뉘어 13~14일 무등산 등에서 경기한다.

전문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누가 더 빨리, 높이 올라가는 자를 겨룬다.

2010년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은 남자 일반부에서 아마 6단인 송승석(경기)이 우승했다.

바둑협회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 남녀 2인조가 한 수씩 번갈아 두는 페어 경기를 처음으로 열었다.

슬라롬, 트릭, 점프, 웨이크보드 등으로 치러지는 수상스키는 13~14일 영광 불갑 저수지에

서 열린다.

당구에서는 ‘얼짱 소녀’ 차유람이 출전하지 않지만, 국내 스리쿠션의 ‘최강’으로 세계랭킹 6위인 김경률 등 고수들이 나선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올해부터 ‘동호인’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 여자복싱의 경우 선수들이 참가를 꺼려 출전 선수가 지난 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라인롤러의 경우 동호인이 함께 하는 인라인 마라톤을 열려고 하다가 참가 신청이 저조해 계획을 취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진정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 본사 판매국(062)220-0551	J조 안성형외과 동구 금남로3가 킴리센터2층 생지골·원도입,안면외형성형,안면윤곽 기성성형미세사(자외선)이식,보톡스전문 ☎(062)225-0118~9	풍수철학원공인중개사 신월동 부영1차@상가 2동 101호 시주김정,풍수김정,부동산신설림 ☎(062)972-8044	양삼구이 양림동 양림동사무소입구 오돌배,향장살,연면구이,미장구이 전통을 지향하는 주인장의 손맛! ☎(062)676-3839	초가집 용봉동 택지개발지구내 광주은행뒤 단체·손님환영 ☎(062)512-1179	동원철학원 방림동 봉선초등학교옆 '30년전통의 철학원 개원' 사주,자명,풍수,택일 ☎(062)433-2555	강강슬래 풍림동 1034번지 한우임수,한근(600g)23,000원 삼겹살 가격으로 한우 안심을 구워드립니다 ☎(062)682-5231	
선운사풍천장어 농성동 순천장골목 양념구이,소금구이,장어탕전문 대표 박태훈 ☎(062)367-9094	와든 금호동 로얄빌딩1층 7일속성 삼겹살 1인분3,800원 계절의 진미 추어탕전문 ☎(019)605-4810	처갓집양념통닭 양림동 학길초등학교 정문앞 양념치킨,후라이드치킨,생맥주 즉시배달 전통을 지향하는 양림동 처갓집 양념통닭! ☎(062)671-3329	서방골곰탕 우산동 무등장레스토랑 생고기,육회,생비빔밥,곰탕 대표 김홍모 ☎(062)529-3332	고향맛집 서구 농성동 서구청과 상록회관사이 '추어탕전문점' 대표 심정식 ☎(062)369-3331	청해진해물칼국수 두암동은영빌딩 두암목욕탕옆 비리(비빔)칼국수,해물전골,해물찌개,콩물면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61-1021		
하림맥시칸 곡성군 석곡면 석곡보건소옆 통닭,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1)362-3962	동양의료기 영암군 읍 남동리 61-3번지 (주)엘피토산코리아 전남총판 청국정키티산,골라겐 의류기,아로마,메트 ☎(061)473-6644	뉴우리카서비스 농성동 교원공체회관근처 서부특수케어전문(치)설치24시간출동대기 차량검사및 정밀검사,대행 ☎(062)352-3366	고려건강원 용봉동 용봉시장앞 육점소,소에치,장어,불어,호박등 기타 대표 이현숙 ☎(062)525-5147	강영준내과 금남로4가 동경빌딩 2층 인공신장센터, 혈액투석실 초음파검사실 (신장)과 전문의 의학과(사) ☎(062)234-5592	수연정 서남시거리에서 인보회관 방향 30m정도 소·곰탕전문 단체·손님환영 ☎(062)521-0488	가보리식당 북동 유영리야구와 산천리생령사이 요일별점심사시 월·매운탕, 화·부지죽을 수 불새미,육·재육음,금·푸이볶음 전문 ☎(062)522-4791	(주)더플라이엔크루즈 금남로1가 YMCA 1층 시계크루즈여행,항공권,성지순례 대표 이웅현 ☎(062)226-9977
김효경미용실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11-3번지 피디, 컷트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1)362-2521	블랙야크 남구 봉선동 대화APT앞 10만원이상구입시 20% 할인 25만원이상구입시 아너저택점 ☎(062)681-1811	구진포민들장어 봉선동 리안상가404호 봉선동 덕산@맞은편 볼판에서도 꼬리를 흔든다. 상생한 그맛! 대표 박경자 ☎(062)673-8106	은주자동차검사소 흑석동시거리에서 임곡방한방병원옆 환경정밀검사,정기검사,전자량검사대행 광주시지정검사장,시고차량상승,폐차상담 ☎(062)952-2114	동양철학원 진월동 대성여고입구 사주,궁합,자명,신수,시명,이시택일 대표 덕산 ☎(062)655-7862	가스용품합인마트(가나에너지) 흑석동 무등도서관앞 임곡역800m지점 각종 가스용품및 가스부속일체 대표 한재진 ☎(062)952-1771	(주)한영금속광주-전남 중흥동 교보빌딩두번째 동관·스텐관·L·관·동·스텐부속일체 이사 전문 목 ☎(062)524-7880	맏들 동구 흑석동사무소와 흑운동생령사이 볶고,낙차로 만든 콩물국수전문 대표 박현주 ☎(062)224-8282
영암스포츠맛사지 영암군 서남리 헬스장1층 목,하리디스크 초·중·고 척추추출중 스포츠 마사지 ☎(061)471-9829	아진공인중개사 진월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옆 APT,상가,토지 매매및 임대 각종부동산 컨설팅 상담환영 ☎(062)673-0033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월계동 첨단우체국골목 부대찌개전문점 대표 이재경식 ☎(062)974-4700	매일국밥 오차동 오차상설시장@옆 국밥 전문점 대표 최복순 ☎(062)268-1315	라푸마용봉점 용봉동 북가천로교묘 하이미트옆 동산,레저용품전문점 오픈마켓10%할인 대표 김복실 ☎(062)511-9090	웰빙할인마트 우산동 무등도서관앞면 우미프라자1층 신장개입기,과일및 생필품할인판매행사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263-5111	예술식당 지산동 법원 승강장옆 생고기,갈비찜,생태탕전문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2)222-9998	닥터포닥터 오차동 오차시거리코너 무릎,허리,관절보통 건강요도신발 대표 오용식 ☎(062)512-3221